

[ TV ]

TV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비밀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EBS. Rows list various programs like 'KBS 뉴스광장', '생방송 세상의 아침', 'MBC 뉴스투데이', etc.

김정은 “시청률 낮아도 열혈팬들 있어 행복해요”

SBS 드라마 '연인'서 링거 투혼...편안한 연기로 시청자 눈길

13일 밤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앞 오 피스텔 건물의 지하 주차장.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커다란 솔로 몸을 돌돌 만 배우 김정은(31)이 SBS TV '연인'의 촬영에 한창이었다. 전남 청주에서 촬영 도중 고열을 동반한 인후염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링거를 맞아야 했으나 미니시리즈 드라마의 백백한 촬영 스케줄 때문에 제대로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상경, 다시 촬영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놈의 감기만 아니면 더 재미있고 즐겁게 촬영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며 미소 지은 김정은은 "사실 몸이 좀 많이 힘들지만 그것만 빼면 드라마 촬영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나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달랐다. "촬영을 앞두고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1편보다 2편이 재미있긴 어렵잖아요. 그런 데 다행히 시청자들이 '연인'을 '파리의 연인'의 연장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전혀 다른 드라마로 봐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시청률은 높지 않음지 몰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보이고 사랑해주셔서 전 행복합니다."

실제로 '연인' 팀이 피부로 느끼는 시청자들의 사랑의 온도는 상당히 높다. 뜨겁게 달아오르는 홈페이지 게시물과 보도그림과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강제(이진진 분)와 미주(김정은)가 주고받는 애절한 대사가 젊은 여성 시청자들을 중심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시청 소감을 읽다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워요. 우리 드라마가 대사가 많거나 구체적이지 않은데도 시청자들이 그 여백의 의미를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연인'의 방송을 앞두고 사람들은 김정은이 '파리의 연인' 때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회를 거듭할수록 그것은 기우였음이 드러났다. '연인'의 미주는 '파리의 연인'의 태영이 아니다. 누구나 변화하듯이, 유쾌한 코믹함이 줄어든 대신 더 설득력 있고 연륜이 묻어나는 편안함이 보태졌다.

LIVING TV 뉴스매거진 리빙투데이 (오전 9시 50분)
한 주간의 여행과 레저, 문화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12월 셋째 주 방송은 삼성동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 진행한다. '이주의 축제'에서는 충남 천북 굴 축제를 살펴본다. 천북 앞바다에서 직접 따온 굴의 맛과 다채로운 행사를 이지역 리포터가 함께 했다.

국제보청기
오래된 보청기(스타키) 보상판매 30%
건전지(بات데리) 가격인하
본점 (동구청 남동성당사) (062) 227-9940
충장점 (금남공원앞) (062) 225-9970

케이블·위성TV 15일

Large table listing various TV channels (YTN, MBN, KTV, MBC MOVIES, OCN, SBS,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s for the day of 12/15.

www.kjpbcc.com
www.tbncable.com
www.afn.com
www.star.com
www.bbs.com
www.kjpbcc.com
www.tbncable.com
www.afn.com
www.star.com
www.bbs.com